

월요광장

조선 후기 ‘호남의 3대 천재’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조국이 광복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그 이전이야 우리들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방 후의 역사는 우리 연배들도 대충은 아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들이 아는 범위로만 한정하더라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독재가 진행되던 시절, 우리 호남인들은 얼마나 천대를 받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왔던가. 호남 출신이라면 서울에서 하숙집을 구하기 어려웠고, 직장에서도 좋은 직책을 맡겨 주지 않았으며, 승진은커녕 있는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일도 얼마나 버거웠던가.

본적지가 전라도라면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어서, 모두 호적을 서울로 옮겨 전라도 사람이지만 서울 사람으로 행세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1998년 DJ정권이 들어서자 주변에서 서울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나도 본적은 호남이었다’라고 나타나던 일이 수없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야 아만스럽게 호남인을 푸대접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 우리 호남인은 더 노골적으로 더 혹독하게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처지였었다.

도대체 왜 우리 호남인들은 아만적으로 푸대접을 받아야 하고 멸시가 가까운 핏발을 받아야 했을까. 정당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이었던 탓으로, 의리와 정의를 끝까지 지키는 호남인들을 반대파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절대로 그러한 대접을 받거나,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없는 호남 사람들임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라도 호남의 과거 역사적 인물들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계몽음을 피울 수 없다.

조선 초기의 ‘호남 3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 이번에는 ‘호남의 세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조선 후기 18세기 초에 태어나 18세기 말에 세상을 떠난 세 천재는 순창 출신 여암 심경준(申景濬: 1712~1781), 장흥 출신 선재 위백규(魏伯圭: 1727~1798), 고

창 출신 이재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었다. 이들 세 천재들은 다른 표현으로 18세기 조선의 3대 실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근기(近畿) 지역에 한창 실학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영남 지역에서는 실학자가 나오지 않던 이러한 시기에, 순창·장흥·고창이라는 세 지역에서 동시에 일반 성리학자로서도 탁월한 수준에 이르고 겸하여 실학에도 선구적인 학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배출된 것이었다. 여암이야 색론으로는 복인에 가까웠으나 존재와 이재는 전통적인 노론학박의 계승자들이면서도 뛰어난 실학사상을 개척해 냈으니 경이롭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 많은 연구 과제가 남아 있지만, 세 천재들의 다음 세대들도 성리학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론과 관념에 치우친 주자학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들 세 천재들은 세계사의 진운에 뒤지지 않게 실학의 주제를 불꽃과 수준 높은 학문적 경지에 이르렀다.

이는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다. 심경준은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의 벼슬을 역임하고 나라에서 편찬한 많은 서적에도 집필자로 참여했으니 서울 쪽의 학문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위백규나 황윤석은 과거에 응시

도 않고 오로지 학문만 연구한 순수 학자들인데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실학사상을 골뎠히 연구했음은 대단히 선구적이고 미래지향적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뛰어난 업적에 찬사를 보내는 뜻으로 세상에서는 ‘세 천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했으리라.

정치적 파당 싸움으로 지역 차별이라는 반문명적 논리에 의해 호남인들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류의 대열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슬한 모멸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선조들 중에는 너무나 훌륭한 애국자나 충신·의사(義士)들도 많았지만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큰 학자들도 많았다.

이제는 우리 호남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호남의 역사도 제대로 연구하고 호남의 충신·의사·학자들의 탁월성에 대하여 본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내야 한다. 옛날 법안에 “자기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돕지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타인들은 울보하게 대접해 주지 않는다. 우리 호남의 일은 호남이 나서야 한다. 우리 호남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장 정당하고 바르게 ‘호남 정신’의 정체성을 밝혀내야 한다.

社說

공공성 부족한 공원 개발 과감히 반려해야

도시공원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기 도 전에 사업자 자격을 놓고 법률 다툼이 일고 있고,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자 제안을 반려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공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 및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은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에 시행 실적이 제외하고 시공 실적만을 인정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신탁사들의 주장에 이해보는 면이 없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의 개발 지침에 따른 시가 직접 평가에 개발에 나서지는 한 편 무질서하게 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추진하되 아파트 건축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기 도 전에 사업자 자격을 놓고 법률 다툼이 일고 있고,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자 제안을 반려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공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 및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은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에 시행 실적은 제외하고 시공 실적만을 인정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신탁사들의 주장에 이해보는 면이 없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의 개발 지침에 따른 시가 직접 평가에 개발에 나서지는 한 편 무질서하게 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추진하되 아파트 건축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U대회 성공의 추억 수영대회로 이어 나가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치러지는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4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대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30일, 광주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인수하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부다페스트 대회 기간 중 현지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광주만의 정체성을 부각한 문화 예술 공연이나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회 개최 도시인 광주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광주 대회는 208개국 국가대표와 수영 동호인 1만 5000여 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치는 명실공히 ‘지구촌 수영 축제’다. 대회 기간이 올림픽보다 두 배나 되고 200여 개 국가가 TV로 중계하면서 누적 시청자 수가 수십 억 명에 이른다.

포스트대회는 ‘양날의 칼’이다. 화려한 외양과 달리 대회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 적자로 몰살을 당하고 한다.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치러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는 그래서 유독 돋보였다. 기존 시설 활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만들었으며 정부 승인액보다 2000여 원 이상 사업비를 절감해 흑자 대회로 기록됐다. 경기 진행도 매끄러웠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역시 U대회의 유산을 이어받음으로써 국제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 경기장 개·보수와 선수촌 건설, 선수 및 관객객 수용 등 각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국비와 스폰서 확보, 전문성 있는 조직 위 구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 자비로 참석하는 마스터스대회 참가자 유치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 불법 금융 다단계



박민철

광주지검 검사

고수익을 보장하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는 말에 속아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에 가입한 사람은 후원 수당 등을 받아 자신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가해자)이 되고 자신이 끌어들이는 자신의 친인척, 친구 등은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다단계판매는 194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국내에 도입된 후 피라미드 판매로 오인돼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1991년 정부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됐다. 또한, 점포 없이 유통업에 뛰어 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의하면, 다단계판매는 ①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②위와 같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의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③판매원 자신 또는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의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 제13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가능하며 1분기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140개 기량이다. 따라서 모든 다단계판매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의 모든 행위가 합법

이라고 선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다단계 판매 방식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불법 금융 다단계가 될 수도 있고 합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와 불법 금융 다단계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감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판매원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법 제24조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단계업체일 경우 형식적인 재화 등의 거래조차 없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재화 등의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 등의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의 장점은 광고비, 유통비 등을 줄여 좋은 제품을 저가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장가격보다 고가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의 장점이 몰락돼 하위 판매원들을 구하기 어려워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금융 다단계를 한 후 소위 ‘먹

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재화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면서 하위 판매자들을 모집하면 평생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급여)을 받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 불법 금융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

위와 같이 판매원들에게 평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 하위 판매원들이 모집되어야 하나, 불법 금융 다단계는 불필요한 재화 등을 고가에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계속해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하며, 초기에 불법 금융 다단계를 기획한 사람들만 고수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뒤늦게 참여한 대부분의 하위 판매원들은 빚더미만 떠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늘어가는 반면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악용해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늘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새로운 불법 금융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그런 사업에 투자하기 전에 불법 금융 다단계는 아닌지 의심해 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기고

일자리 창출과 인큐베이터



김은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제시한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의 육성성은 사실 일자리 창출과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있다.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이 대기업 중심 국내 산업구조의 새로운 미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민간 고용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 1980년에서 2015년까지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46%에서 15%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54%에서 85%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한결을 더 나아가 살펴보면, 벤처창업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벤처창업의 고용 파급효과는 일반 창업보다 미치는 강도가 훨씬 크다. 비록 규모 면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으나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고용의 증가율 또한 매우 높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는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의 고용을 늘리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공급은 나아가 관련 분야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벤처 창업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성공적이기만 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매우 크다 하겠다. 하지만 벤처창업의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기발급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벤처창업의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큐베이터이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에 관한 상담, 자문,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 그리고 투자자, 전문가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스스로 일어서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

인큐베이터와 혼용되어 불리기도 하는 엑셀러레이터는 인큐베이터의 확장된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비즈니스가 직면할 수 있는 조직적, 운영적, 전략적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모두 스타트업의 성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의 대표 기업사례가 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의 급성장 역시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력시스템으로서의 인큐베이터의 국내 현황은 어떨까. 국내에서는 민간보다는 정부와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의 주도로 사무공간의 제공과 교육 등의 초기적 단계의 지원형태가 아직까지는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성공한 창업가들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 매우 적

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을 돕는 스타트업이 선결조건이다. 창업을 개인적인 역량에 맡겨 두는 한에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내건 벤처창업의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에 머물렀던 초기적 단계의 지원 사업을 더 풍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자사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창업을 적극적으로 투자,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촉구가 필요하다. 투자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주도의 엑셀러레이터 역시 창업생태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또한 공공주도의 창업관련 인큐베이팅이 공공서비스 차원으로까지 시스템이 승격,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전체적인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인이 창업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하듯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한 스타트업이 또 다른 잠재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스타트업의 대중화, 제2의 벤처 붐,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창업국가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쉬운 길은 없지만 함께 이루지 못할 바도 없지 않겠다.

無等鼓

최근에 운동주 시인의 고향 중국 용정(명동춘)을 다녀왔다. 올해는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광주일보와 주간 ‘시산맥’이 함께한 문학기행에 동참한 것이다. 40여 명의 후배 시인들이 운동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현지의 운동주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었다. 2012년 용정시는 옛집을 단장했고 조선족 동포들도 심심일만 정성을 모았다. 현지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은 백두산과 두만강을 오가며 곧잘 시인의 고향을 방문한다고 했다. ‘운동주’ 부끄러움이 없기를!

‘백두산’ ‘두만강’은 아마도 민족이나 통일과 같은 단어를 환기할 터였다. 외국에 나오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도 상통되는 얘기였다.

생가 입구의 표지석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다. 커다란 표지석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운동주 생가, 中國朝鮮族愛國詩人尹秉柱故居’라고 적혀 있다. ‘이게 뭐지?’라는 황당함이 밀려왔다. 표지석 글자를 줄이면 ‘중국 애국 시인 운동주’가 되었다. 운동주는 중국어로 시를 쓰지 않았다. 더더욱 그는 중국 국적의 문인으로 살지도 않았다.

그가 다녔던 명동학교는 우리말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양한 곳이었다. 구한말 많은 선각자들과 이주민들은 만주를 기반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했고, 근대 민족 교육을 활발하게 펼쳤다. 운동주의 외삼촌 김약연도 이곳에서 독립사상을 외쳤다. 문학청년 운동주가 순수한 한글과 민족 고유의 정서를 기반으로 시를 썼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운동주의 흔적을 찾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대고 했다. ‘운동주’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겠! 그를 기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운동주’라는 표지석을 두고도 아무런 조치나 항의 한 번 없는 정부의 무관심이 아닐까. 사드나 대중국 무역 같은 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언어와 정신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다. 정체성과 뿌리를 흔드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